

한국언어정보학회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소 식 제 19 호 (1999년 4월)

KSLI Newsletter No 19, April 1999

발행인: 최재웅

편집인: 김종복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130-701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내

전화: 02-961-0892/0211 전송: 02-959-9018

E-mail: jongbok@nms.kyunghee.ac.kr, URL: http://society.kordic.re.kr/~ksli/

새 회장단 구성과 1999년도 학회 출발

지난 3월 30일 1999년 학회가 새로운 회장단(회장: 고려대 최재웅 교수, 총무: 경희대 김종복 교수, 편집: 충남대 노용균 교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처럼 저희 회장단은 회원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어정보] 원고 모집 및 2학기 연구 발표 논문 모집

올해 8월초에 발간할 예정인 [언어와 정보] 제 3권 제 1호에 실을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학기 연구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시거나 주변에서 추천할 만한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총무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조문법연구회

지난 4월 3일 본 학회 산하 '구구조문법연구회'의 강독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모임은 경희대 김종복 교수님이 발표하셨고, 약 30-40여명의 회원 여러분들이 참여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의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Syntax and Morphology Interface 라는 주제로 Jean-Pierre Koenig (1999)의 *Lexical Relations*을 강독 교재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어휘부를 "Type Underspecified Hierarchical Lexicon" 개념을 이용하여 구조화 시킨 논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은 현재 HPSG의 통사론 연구에도 확장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를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먼저 "E-mail(leri@nms.kyunghee.ac.kr)"로 신청하시거나, 학회 당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학회 일정은 본 소식지 하단부를 참조하십시오.

학회 홈페이지 구축 및 수정 작업

언어정보학회 홈페이지가 <http://society.kordic.re.kr/~ksli>에 1차 개설 되어있습니다. 많은 부

분들이 미진하고 내용 첨가 및 수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조언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 1999 LSA Summer Institute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개최되는 정기 99년 미국언어학회 여름학교에서 장석진(서울대), 이기용(고려대) 교수님께서 각각 강의하십니다. 담당과목의 강의 제목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강의제목 및 기간: 장석진 - "Korean Pragmatics" (July 19-30: 2 week course)
이기용 - "Korean Semantics" (July 5-16: 2 week course)

☐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LSA 여름학교와 병행하여 한국언어학에 관련된 학회인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가 7월 23-24일까지 개최됩니다. 논문 초록마감은 4월 15일이며 초록은 Illinois대학의 James Yoon (jyoon@uiuc.edu) 선생님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Call for Paper의 구체적인 내용은 LSA Website[<http://www.lsadc.org>.]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국내외 언어학 동향

편집자 주: 지난번에 이번호에는 국내외 학술 동향은 경희대 박병수교수님의 글을 신습니다. 좋은 글을 작성해주신 박병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PACLIC 13 참관과 PACLIC 14 개최 예정 소식

박병수 (경희대)

올해 PACLIC 13 (The 13th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은 중국 대만의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주최로 1999년 2월 10-11일에 대북의 The Grand Hotel 에서 열렸다.

19편의 long papers와 17편의 short papers가 발표되었고 시드니 대학의 Christopher Manning이 "Linguistics in an Age of Engineering"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벨 연구소 Dialogue Systems Research Department의 Head인 Chin-Hui Lee가 "Spoken Language Systems: Technical Challenges for Speech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제목으로 주제 연설을 했다. 분야별로 보면 의미론 내지 화용론이 11, 통사론이 6, 음성학 내지 음운론 5, NLP가 14편이었다. 세계에서 최고의 호텔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중국 황실 스타일 호텔의 쾌적하고 안락한 회의 장소에서 강행군의 이틀 동안 열띤 토론의 장을 즐길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정찬 교수(동서대), 신승훈 교수(동서대), 김효영(U. of Michigan), 이익환 교수, 양단희, 송만석 교수 (연세대), 본인 (경희대) 등이 다섯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총 36 편 중에 다섯 편이면 예년에 비해 참여율이 다소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은 우리 한국언어정보학회 회원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내년

PACLIC 14는 일본 동경의 Waseda 또는 Sophia 대학에서 열기로 결정하였다 (2000년 2월 중). 그리고 2001년 PACLIC 15는 우리 한국이 주최할 차례이다.

㉞ 회원소식

고려대 언어과학과 이기용 교수님께서 [전산형태론](고려대 출판부)을 펴내셨습니다. 정가는 10,000이지만 학회에서는 7,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교수님께서 이 판매 대금을 저희 학회 운영비로 기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㉟ 회원주소록 정정 및 주소록 배포 계획

새로운 주소록을 작성하여 5월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주소 (email 및 homepage 주소)에 참가 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leri@nms.kyunghee.ac.kr이나 전화 961-0211로 연락주시시오.

㊱ [언어와 정보] 2권 2호 발간

우리 학회지 [언어와 정보](ISSN:1226-7430) 2권 2호 (1999년 2월 12일 발행)가 출판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는 3월 20일 첫 모임에서 배부하였습니다. 추가 구입도 가능합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문화사 (전화: 02-464-7708)로 문의바랍니다. 각 학교의 도서관이나 관련 학과에서 이 책을 구비해 놓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㊲ 회원 가입 및 학회비 납부 안내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총무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당 학회비는 일반회원이 15,000원이며 학생회원은 3,000원입니다. 학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은행 계좌로 간사에게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유은정, 계좌번호: 012336-0069810, 경희대 서울 우체국)

㊳ 4월 17일 발표자 논문 초록

PS and FC 'amurato' and 'amuna'

윤 영 은
(이화여자대학교)

본 논문은 영어의 'any' 표현과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아무도,' '아무라도,' '아무나' 등의 여러 가지 '아무' 표현들을 비교하여 그 허가 맥락과 분포, 의미상의 차이점 등을 기술하고, 기존의 이론들이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무도' 표현의 경우는 기존의 이론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상당히 제한된 맥락에서만 나타나는 반면, '아무라도'와 '아무나' 표현은 별 제약 없이 거의 모든 맥락에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다. ‘아무도’의 경우는 어휘적으로 명시적인 또는 비명시적인 부정 맥락에서만 나타나는 반면, 다음의 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아무라도’와 ‘아무나’의 경우는 거의 모든 맥락에 나타나는 동시에 FC 해석과 PS 해석을 모두 얻을 수가 있다.

- (1) 가. 민수는 아무 것이라도 먹었다.
나. *Minsoo ate anything.
- (2) 가. 아무 꽃이라도 따야만 한다.
나. *You must pick any flower.
- (3) 가. 어제 민수는 아무 여자에게라도 말을 걸었다.
나. *Yesterday Minsoo talked to any woman.
- (4) 가. 민수는 아무 것이라도 먹지 않았다.
나. $\forall x[\text{thing-to-eat}(x) \rightarrow \neg \text{ate}(m,x)]$
다. $\neg \exists x[\text{thing-to-eat}(x) \wedge \text{ate}(m,x)]$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국어 ‘아무’ 표현에서 중요한 현상은 영어에서처럼 서로 다른 분포를 보이는 PS ‘any’와 FC ‘any’를 분리해서 별개로 또는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아무’ 표현이 거의 모든 동일한 맥락에서 존재 해석과 전체 해석 등의 두 가지 해석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또 단조 감소 함수 맥락, 총칭 또는 양상 맥락과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휘적 긍정 맥락과 어휘적 부정 맥락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존재 해석, 전체 해석과 어휘적 긍정과 부정 맥락의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제안될 것이며, C. Lee(1996, 1997)가 이미 일부 제안했듯이 한국어 ‘아무’ 표현의 ‘-도,’ ‘-라도,’ ‘-나’는 모두 ‘양보 표시’(concessive marker)이며 Kay(1990)와 Y. Lee(1998)의 제안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어의 모든 ‘아무’ 표현들은 ‘강조 진술’(emphatic statement)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제안될 것이다.

논항의 판별기준

홍 기 선
(서울대학교)

(1)과 같은 동사성 복합어(verbal compounds)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의 공동 연구주제 중의 하나이다.

- (1) truck driver, man-eater, computer programming, moth-eaten

통사이론에서는 이들과 문장의 서술어로 나타나는 동사와의 비교가 많이 연구되어 왔다.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든지 복합어의 핵으로 나타나든지에 상관없이 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의 수와 종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항구조이론(Argument Structure Theory)의 관점에서 우리말의 동사성 복합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주요 관심은 어떤 요소들이 이 구조의 비핵어로 실현되는

가 하는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해 기존 연구들은 언어자료에 충실하게 각종 부가어가 비핵으로 실현된 경우도 포함시키자는 입장(Roeper and Siegel 1978, Lieber 1983 등)과 논항이 비핵으로 실현된 경우만 설명하려는 입장(Selkirk 1982, Grimshaw 1990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말의 동사성 복합어에 대한 연구도 대체로 논항이 비핵인 경우들을 다루고 있다(Cho 1994, 시정곤 1995, 안상철 1998 등). Grimshaw의 연구에서는 이 구조를 논항구조이론으로 분석할 뿐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논항구조이론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주장은 대체로 (1) 비논항이 비핵이 되는 경우는 예외이며 (2) 이 구조는 항상 불포화(unsaturated)되고 (3) 비핵어는 의미역 위계(thematic hierarchy)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 대사전"에 수록된 실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첫째, 비논항 비핵을 예외로 처리하기에는 그 수와 종류가 너무 많음을 알게 된다. 부사, 형용사, 동사의 부정사구가 합성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논항인 Location보다 더 넓은 의미의 장소, 시간, 도구, 방향, 양태, 방식, 자격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 명사구가 합성되며 전체적인 상황에 관련되기는 하나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둘째, Cho(1994) 등에서 주장된 대로 우리말에서는 비대격동사의 주어가 자유로이 합성되므로 불포화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자료의 수는 작으나 "개싸움, 닭싸움, 술래잡기" 등은 Agent도 합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셋째, 논항들이 합성된 경우를 살펴보면 Agent, Experiencer, Goal, Location, Theme, Patient 등 여러 의미역 간의 세분화된 위계가 아니라, Theme/Patient와 다른 의미역이라는 두 가지 구분만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런 결과는 우리말의 관용어구 분석(홍기선 1998)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데, 왜 Theme/Patient가 이런 위상을 차지하는가는 의미적으로 더 연구해 볼 주제이다.

종속절 시제 해석 규칙

정 소 우
(성신여자대학교)

본 논문은 영어 종속절 시제 해석을 위한 통사적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주절과 종속절에 묘사된 사건간의 시간적 포함 관계 해석을 다룬 Stowell (1993, 1995, 1996)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Stowell은 Zagana(1995)처럼 전통적으로 시제라고 여겨졌던 것을 '시간(Time)'과 '시제(Tense)'로 구분한다. 시제는 TP의 핵인 T이며, T는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과 '내부논항(internal argument)'인 두 논항의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술어(dyadic predicates of temporal ordering)로 설정한다. 그는 과거시제 형태소 '-ed'나 현재시제 형태소 '-s'는 진정한 시제(true tense)가 아니라 'any'나 'some'과 같은 부정극어요소(Negative Polarity Items)로 보고 그에 따른 제약 조건을 설정한다.

본 논문은 Stowell이 제시한 분석 중 보문절과 종속절 이동 뒤에 남는 흔적에 대한 처리의 일관성 문제를 논한다. 미래를 나타내는 'will' 역시 현재 형태소와 마찬가지로 부정 극어의 성격을 지녔으며, 과거시제의 범위 밖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것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시제는 지시적 표현이 아니며 양화사처럼 행동한다는 Ogihara (1995)의 타당성도 간략히 다룰 것이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예문들의 일부이다.

- a. John said that Mary was sick.
- b. John said that Mary is sick.
- c. John said that Mary will visit Seoul soon.
- d. John will say that Mary will visit Seoul.
- e. John told me that tomorrow at breakfast he will say to his mother that they are having their last meal together.

Getting the *Do*-support Effect without *Do*-support

Jong-Bok Kim
(Kyung Hee University)

One of the unique properties of the English sentential negator *not* is that it requires the so-called dummy or periphrastic *do* in finite clauses. Other negative adverbs such as *never* do not exhibit this requirement. A standard analysis for capturing such a peculiar property has been the so-called *do*-support analysis. This paper sketches an alternative, non-derivational account of its properties that does not resort to any movement and support operations as in various versions of *do*-support analyses.

There are three main points of the proposed analysis. The first is the lexical entry for *do*. I take it to be a finite auxiliary verb selecting for a non-auxiliary verb phrase as its complement with the property of a raising verb. This lexical specification allowed us to capture its various distributional restrictions. Another gist of this analysis is that, following Kim (1995), it allows the *do* verb to take the adverb *not* as its complement and at the same time become [+unstressed]. This conversion analysis, motivated from other independent phenomena such as VP ellipsis (see Kim 1995) could predict the phonological behavior of *do*. The final main point of our analysis is the Tense Realization condition in English. This blocking condition accounts for the requirement of stressing *do* in a positive while blocking an unstressed *do* from occurring in a positive sentence.

The verb *do* bears numerous idiosyncratic properties. The analysis presented here handles these complexities in a straightforward manner.

한국언어정보학회

<1999학년도 제1학기 연구 발표 계획>

장소: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 앞 대우 빌딩 뒤) 세미나실

(OHP가 필요하신 발표자께서는 미리 총무에게 연락해주시요.)

날 짜	시 간	발표자	발 표 및 강 독	사 회
3월 20일 (토)	9:30-10:40	이정민(서울대), 남승호(서울대), 강범모(고려대)	Underspecification for Polysemous Predicates in Korean	김종복
	휴식(10분)			
	10:50-11:30	이민행 (연세대)	강독: Bayer, Samuel et al. 1998.	김종복
11:30-12:10	이예식 (경북대)	Scalar Implicature in Dynamic Semantics		
4월 17일 (토)	9:30-10:10	윤영은 (이화여대)	PS and FC: 'amurato' and 'amuna'	노용균
	10:10-10:50	홍기선 (서울대)	논항의 판별기준	
	휴식(10분)			
	11:00-11:40	정소우 (성신여대)	종속절 시제 해석 규칙	노용균
11:40-12:20	김종복 (경희대)	Getting the <i>Do</i> -support Effect without <i>Do</i> -support		
5월 15일 (토)	9:30-10:40	이현우 (인하대)	The Syntax and Semantics of <i>selo</i>	채희락
	휴식(10분)			
	10:50-11:30	박병수 (경희대)	Argument Structure of Korean Adjectives	채희락
11:30-12:10	윤재학 (경희대)	TBA		
6월 12일 (토)	9:30-10:40	장석진 (서울대)	Where Grammar Meets Pragmatics: A Constraint-based Approach to Discourse	이민행
	휴식(10분)			
	10:50-11:30	채희락 (한국외대)	TBA	이민행
11:30-12:10	문승철 (항공대)	TBA		

한국언어정보학회 구구조문법연구회

<1999학년도 제1학기 강독 계획>

장소: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 앞 대우 빌딩 뒤) 세미나실

- ◆ 강독주제 : Syntax & Morphology Interfaces
- ◆ 강독교재 : Koenig, Jean-Pierre. 1999. *Lexical Relations*. Stanford: CSLI Publications.

(OHP가 필요하신 발표자께서는 미리 총무에게 연락해주시오.)

날 짜	시 간	발 표 자	강 독 내 용	토 론 자
4월 3일 (토)	10:00-12:00	김 종 복 (경희대)	Introduction & Two Kinds of Lexical Relations (Ch.1&2)	
5월 1일 (토)	10:00-12:00	유 은 정 (서울대)	On-line Type Construction (Ch. 3)	박 병 수 (경희대)
5월 29일 (토)	10:00-12:00	이 민 행 (연세대)	A typed constituent structure-based morphology (Ch. 4)	정 찬 (동서대)
6월 26일 (토)	10:00-12:00	채 희 락 (한국외대)	The AND/OR nature of morphological processes (Ch. 5)	조 세 연 (호남대)